

돼지독감·흑사병…중국 초강력 전염병 속출

네이멍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
돼지독감 바이러스도 발견
전문가들 “어디서나 존재 가능
중국 발원설엔 단정 못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흑사병까지 강력한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해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전세계에서 1200만명 가까이가 확진되고, 54만명 가까이가 숨지면서 제2 또는 제3의 팬데믹이 우려돼서다.
6일(현지시간)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바옌나오일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아 조기 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3급)’ 경보를 연말까지 발령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물려 세균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앞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연구진은 지난달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G4’라고 명명된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증상을 보이는 패럿을 이용한 바이러스 실험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

간 세포에서 자가복제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가 변이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바이러스의 전파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중국사무소는 지난해 12월 31일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를 처음 본부에 보고해 코로나19의 시작을 알렸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55만6681명, 사망자는 53만677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298만2928명), 브라질(160만4585명), 인도(69만

7836명), 러시아(68만1251명), 페루(30만2718명) 순으로 많다.
학계에서는 중국에서 전염병 발병이 가장 먼저 관측된다고 해서 중국을 해당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톰 제퍼슨 영국 옥스퍼드대 증거기반의학센터 선임연구원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많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에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여건이 유리해지면 창궐한다”고 전염원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했다. 제퍼슨 연구원은 “이는 바이러스들이 생겨난 것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1918년 서사모아제도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단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제퍼슨 연구원은 “30%가 스페인독감으로 사망했는데, 그들은 바깥 세계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日 구마모토현 기록적 폭우
일본 구마모토현 남부 히토요시의 시가지가 4일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진 탓으로 대거 물에 잠겨 있다. 당국은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현의 주민 20여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비전, 오늘 방한... ‘대북 메시지’ 내 놓을까

트럼프 선물 보따리도 주목

스티븐 비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금주 방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방한 중 타전할 대북 메시지가 관건이다. 그의 방한이 미 대선 전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타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한국행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색이 이어지

고 이와 맞물려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 회담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비전 부장관은 방한길에 올라 7~9일께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전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전략대화를 갖는 것을 비롯,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한반도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 부장관이 지난해 12월 방한 시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대북 특별 대표를 겸하는 비전 부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지 하는 것과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 여부이다. 미국이 이번엔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 협상으로 견인할 유인책을 제시할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9〉 아골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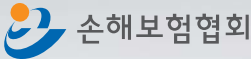
아골타(阿骨打, 1068~1123)는 금나라의 초대 황제다. 1115년 금 왕조를 건국하고 요 왕조를 사실상 멸망시켰다.
헤이룽장성 하얼빈 동남부 아시히유역에 살던 완안부(完顔部) 족장 헝리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여진은 요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생여진(生女眞)과 숙여진(熟女眞)으로 구분된다. 송화강 서남부에 거주한 숙여진은 요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던 반면 송화강 동부의 생여진은 간접지배 상태에 있었다. 완안부는 생여진의 한 부족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주변 부족을 병합해 세력을 키웠다. 아구다는 숙부 영가와 형 오아숙을 도와 세력 확충에 기여했다.
1113년 형이 죽자 즉장에 올랐다. 여

으로 가서 금의 사신과 함께 개봉으로 돌아왔다. 금이 요와 복송을 저울질하다가 복송을 파트너로 결정한 것이다. 요의 천조제가 금 태조를 동화국 황제로 책봉한다는 국서를 보낸 것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복송과 금과의 동맹 조건은 복송이 요에게 매년 보낸 세폐를 금에 보내고 송과 금이 요를 협공할 때 금이 장성(長城)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요를 협공하기 위해 복송이 군대를 동원하는 도중에 강남에서 방남의 난이 발생했다. 15만 군대를 난 진압에 투입했고 요에 대한 공격은 지연되었다. 송은 금에 출병을 요구해 연경을 함락시켰다. 연은 16주 중 연경 이남의 6주는 송에 할양되었지만 연경 이북은 금의 산하에 들어갔다. 금은 출병의 대가로 은 20만냥 비단 30만필 전 100만과 군

요 왕조 멸망시킨 금나라 초대황제

진은 일찍부터 전투에서 용맹해 “여진이 1만이면 절대 싸우지 말라”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1114년 요에 대항해 길림성 남림에서 거병했다. 요는 장기재위한 도종이 죽고 천조제가 즉위했다. 즉위 초기에는 국정에 관심이 있었으나 점차 수렵과 가무에 빠져들었다. 1115년 아골타가 황제에 즉위하니 태조다. 국호를 금(金) 연호를 수국(收國)으로 정했다. 채취된 사금(砂金)이 완안부의 유력한 산업이었는데 여기서 국호가 유래되었다. 금사(金史)에는 “금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금은 백색이며 완안부는 백색을 중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동 지역의 황룡부(黃龍府)를 함락시켰다. 요의 천조제는 70만 대군을 편성해 대항했으나 혼돈강 주변에서 참패했다. 요양부에서 황룡부에 이르는 요동이 금나라의 판도가 되었다. 거란에 멸망당한 발해국 유민들도 복속하였다. 천조제는 패잔병을 이끌고 상경으로 도망쳤다.
복송의 실세 환관 동관이 사절로 요에 갔는데 요의 국력이 쇠퇴한 것을 목격했다. 귀국전에 연경의 마식을 알게 되어 휘종에게 추천했다. 요에 빼앗긴 연은 16주를 탈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복송은 마정을 밀사로 금에 파견했다. 마정이 해로(海路)로 금에 갔기 때문에 복송과 금의 맹약을 해상의 맹으로 부른다. 1120년 마식이 직접 금

량 20만석을 요구했는데 복송은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복송은 금에 함락된 연경의 반란을 요구했다. 금은 자력으로 연경을 점령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금 태조는 복송과의 밀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성(空城)을 넘겨주고 성내의 주민과 재화는 모두 금으로 옮겼다. 태조는 병에 걸려 1123년 9월 수도인 상경 회령부로 돌아가던 도중 죽었다. 동생이 뒤를 이으니 태종이다.
요나라가 망한 것은 2년 후인 1125년이다. 1126~27년에는 개봉을 공격해 복송 왕조를 멸망시켰다. 역사상 유명한 정강지변이다. 이로써 금은 만주, 내몽고, 화북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조를 구축했다.
통치 효율화를 위해 여러 명의 발국렬(勃極烈)을 두어 합의제 방식으로 통치했다. 맹안(猛安) 모크(謀克) 제라는 새로운 정치·군사 조직을 만들었다. 300호를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모국을 만들고 10개의 모국으로 맹안을 조직했다. 이를 통해 통일적인 지배와 중앙집권 강화를 시도했다. 태조는 1119년 완안회를 시켜 여진 문자를 만들도록 명했다. 태조는 넉넉한 인품과 강력한 통솔력으로 여진족을 통합해 금 왕조 구축에 기여한 뛰어난 지도자였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